

# 고유영역 넘나드는 공동연구의 성과물들

##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시각 제공... 학제간 교류 막는 장치부터 없어야

최근 인접학문 혹은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공동연구나 학문적 교류를 통한 저작물들이 속속 출간돼 반가운 눈길을 끈다. 흔히 학제간 교류(Interdisciplinary)라 통칭되는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우리 학계가 전통적으로 공동연구의 토양이 척박하다는 사실 때문에 신선함을 더한다.

최근 단행본으로 출간돼 일반 독자들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학제간 교류의 성과물로는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대화), 《가족철학》(이화여대출판부), 《한국인의 일상문화》(한울), 《인간과 행동》(연세대출판부),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까치) 등이 있다.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같은 주제로 진행한 연구포럼의 결과를 모은 것. 소흥렬(철학)·허은나(교육공학)·최양수(신문방송학)·윤영민(정보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 20여명이 4회에 걸쳐 실시한 연구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모았다. 정보기술의 확산이 인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견하면서 정보기

**인접학문 혹은 다른 학문과의 공동연구 성과물들이 속속 나와 반가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아직 그 교류는 미미해서 학문의 특성 자체가 학제간 교류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성학이나 문화연구, 현안문제 대한 모색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테마대담. 왼쪽부터 하영선(외교학)·권태준(환경학)·박세일(법학)·안병영(행정학) 교수.

술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과 이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성학, 문화연구 및 정치·사회분야 활발**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은 안병직(독일)·김현일(프랑스)·이영석(영국)·안재



홍(미국)·이체욱(러시아) 등 5명의 사학 및 정치외교학 전공자들이 '19세기 유럽 노동사'를 주제로 해 2년간의 공동작업을 거친 끝에 나온 결실이다. 전공에 따라 나라를 나누어 원고를 기술하기는 했지만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문헌을 함께 읽고 토

론했을 뿐 아니라, 초고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덕분에 이 책은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분야 개설서로서 독보적 의의를 지닌다는 평. 《인간과 행동》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고 문리대학 생명과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해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입장으로 나누어 인간이라는 독특한 존재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한 책이다.

《한국인의 일상문화》와 《가족철학》은 학제간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연구와 여성학 분야의 저서로 주목을 끈다. 《한국인의 일상문화》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이 1993년에 결성한 연구모임인 '일상문화연구회'가 공동연구를 통해 펴낸 책. 한국인과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 이 공동연구는 학제간 교류라는 측면뿐 아니라 사회학적 논술형식에서 벗어나 쉽게 읽히는 글쓰기를 목표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족철학》은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을 위해 개설되었던 '가족철학' 세미나에서 발전된 것이다. 학부에서의 전공도 관심도 다 다른 여성학과와 철학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고 지도교수인 정대현 교수(철학)와 허라금·이재경(여성학)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최근에 나온 이러한 단행본 외에 연구회나 사회단체 등 소그룹 중심으로 이미 오래

### 화제의 책

## 인물을 통해 재구성한 인류의 역사

'한길로로로' 1차분 10권 출간

'한길로로로' (한길사)의 1차분 10권이 나왔다. 독일 로블트 출판사가 펴내는 '로로로 평전'의 한국어판이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기시리즈인 '로로로 평전'은 독일작가 쿠르트 쿨렌베르크가 1958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00여권이 출간되었다. 독일권에서만 2천만부가 팔렸는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옮겨져 전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매달 1권씩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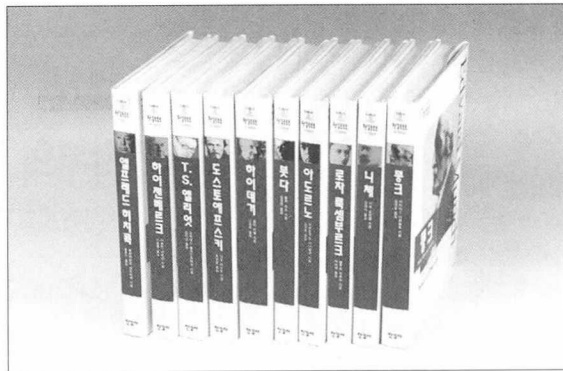
'로로로 평전'은 철학자·사상가·예술가·과학자·정치가·교육자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출현한 대중문화 스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삶과 지적 편력, 업적과 유산 등을 꼼꼼하게 다뤘다.

한길사는 지난해 로블트 출판사와 300권에 대한 저

작권 계약을 맺고, 먼저 102권을 펴내기로 했다. 국내 독자에게 유익한 인물을 선별해 펴낼 계획인데, '한길로로로'만의 몇가지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페이지백을 하드커버로 바꿨고, 분야별 분류번호를 매겨 놓았다. 1번은 사상·철학, 2번은 문학, 3번은 예술, 4번은 과학·의학, 5번은 역사·일반의 의미한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분류번호는 '1-004'인데, 사상·철학 분야의 네번째 책을 뜻한다.

이번에 출간된 1차분은 《아도르노》《붓다》



《니체》《로자 룩셈부르크》《하이데거》 등 5권이 사상·철학 분야에 속하고, 나머지 5권은 《도스토옙스키》《T.S. 엘리엇》(문학), 《엘프레드 히치콕》《몽크》(예술), 《하이젠베르크》(과학·의학) 등이다.

여름에는 ▲루소 ▲페스타로치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바흐 ▲펠리니 ▲파라켈수스 ▲아돌프 히틀러 ▲카이사르 ▲비스마르크 등 10명의 전기가 나올 예정이다.

〈최성일〉

한길사/A5/각권 250~300면/각권 8000~9000원

# 출판이 읽어야 할 것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 이 변혁의 시대에

### 책 없이 새 노동의 장을

#### 창조할 수 없다.

### 책은 아이디어의 뿌리이며

#### 탄생의 거점이다.

### 책의 불황은 뿌리다운

#### 책이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출판에서 불황은 낮은 일이다. 그러나 올해 불황은 낮설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교차하면서 이제 우리도 새 산업의 단계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는 불황이다. 구조조정이란 말하지만 이런 표현은 사태를 오해시킬 위험이 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고, 삶의 양식의 새로운 선택이다. 미국은 이 전환에 가장 성공한 나라처럼 보인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근로자 1억3천만명 중 4천5백만명이 그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3천8백만개를 창출했다. 그리고 이 새 일자리는 모두 정보산업적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생겨났다. 든든한 어깨만 있으면 죽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력이 있으면 더욱 좋았던 일은 지금 의미를 잃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혀 다른 근로자를 찾고 있다.

일주일 내내 잠이나 자고 있어도 그만이고 한달에 단 한번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타할 것이 없다. 단지 1년에 하나 정도라도 아이디어만 들고 나오면 그것으로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근로자를 바란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이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는 미국서 새로 만들어낸 3천8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책 한권을 읽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시대와 산업에 너무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출판의 시각으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회현상은 '불황에는 책이 더 잘 팔린다'는 것. 그리고 최근 10년 '책이 계속 더 잘 팔리고 있다'.

책읽기는 명답을 찾아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책읽기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생산적인 삶의 기술이다. 또 이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창조력 개발의 거의 유일한 도구이다.

기술과 도구로서 책은 정보사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요를 늘리고 있다.

우리의 출판불황은 그러나 이런 양식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불황에 앞서서 먼저 불황이고, 불황일 때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철저한 불황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불황이 지나가면 다시 다소간 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보사회에서는 책이 없는 불황은 불황 그 자체를 소생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변혁의 시대에 책 없이 새 노동의 장(場)을 창조할 수 없음을 총력을 기울여 말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출판뿐이다.

그리고 책은 우리가 최근 열심히 만들고 읽어온 그 재미있고 알록달록하고 또는 튀는 책들이 아니다. 아무 책이나 불황을 뛰어넘게 할 수는 없다. 창조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들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출판대상에 오르기조차 힘들다. 출판은 진실로 출판을 살려줄 책들을 그동안 방치하고 기피했다. 과자상자나 장난감상자처럼 예쁜 색칠을 한 책들을 찾아다녔다. 이 예쁜 책들은 불황에서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미국의 엘빈 토플러보다 영국의 찰스 헨디에게서 더 많은 힌트를 얻는다. 그는 말한다.

“이 시대의 자산이 노동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자산이라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미래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는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분배도 불가능하다. 그뿐인가. 유산상속마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재화가 만들어내는 새 경제질서는 어떤 것인가?”

책은 이 아이디어의 뿌리이며 탄생의 거점이다. 그러므로 책의 불황은 뿌리다운 책이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

전부터 학제간 교류를 시도, 그 연구성과를 세상에 내놓은 것들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재)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강원용). 1991년말 신선한 사고를 가진 연구자들을 공동작업팀으로 구성하여 “21세기의 신문명을 염두에 둔 새로운 실천논리를 개발한다”는 방침하에 연구자를 물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폭넓은 대화모임을 통해 의견을 덧붙여 펴내는 ‘내안문화총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한국영화의 제3의 물결》(강한섭·김경식·신철·전양준)을 필두로 《음악의 파장, 공명의 파장》(강현·성우제·김철진)까지 총 6권이 출간됐다. 연전에 나온 《주민자치, 삶의 정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소그룹인 정치·경제 연구모임의 공동연구성과를 모은 책. 김지하, 조혜정 등 학계와 주민자치운동 현장에 참여하는 17인이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 참여의 주민자치를 지역자치, 시민운동, 정치·경제·기술, 지역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핀다.

한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는 ‘정치란 무엇인가’의 연구모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권혁범(정치학) 김성국(사회학) 김준석(한국사) 김홍우(정치학) 박은정(법학) 한경구(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이 연구모임의 성과도 책으로 묶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소장 김대환)에서도 현재 참여민주주의론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 참여 시민운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주된 주제로 하여 경제학·철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역시 성과는 책으로 묶인다.

## 창의적인 학문 생산의 기초

명실상부한 의미의 학제간 교류는 아닐 지라도 그 씨앗은 될 수 있는 공동연구의 노력은 최근 일고 있는 지역사회연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제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8월에 창립, 95년 5월에 사

단법인으로 확대재편한 호남사회연구회(회장 김의수)의 활동은 가장 눈에 띈다.

연구회가 펴내는 《호남사회연구》는 현재 3호까지 발간됐다. 지역사회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성과물은 이밖에도 많다. 《대구·경북 사회의 이해》《자치시대, 대구 경북의 비전》《자치시대의 지역환경》은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권기홍)가 펴낸 책이다.

이처럼 학제간 교류를 통한 성과물이 속속 출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학제간 교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한다. 양적으로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현재 나와 있는 성과물도 대부분 학문적 특성 자체가 학제간 교류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성학이나 문화연구, 혹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은 이런 평이 틀리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처럼 전공 자체가 잘게 세분돼 있지 않고 개인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이곳저곳을 넘나들면서 연구한다. 한 소장학자는 “우리 학계의 풍토나 대학의 학제 등 모든 여건이 학제간 교류를 막는 장치들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대학들이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많은 학과를 뒤서 자기 ‘과’의 세분리기에 열중해야 존립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환경도, 새로운 시도나 방법론적 실험보다는 지도교수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학위를 마칠 수 있는 학문풍토도, 능력보다는 줄과 배경을 우선하는 교수채용 경향도 모두 그러한 장치들이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의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신의 영역’만을 부여받고 그 안에 안주하는 수구적인 자세는 안된다. 이는 사실에 반대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절망하기도 한다. 창의적인 인간교육, 세계화에 부합하는 학문의 생산을 위해서는 학제간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 개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교육제도의 개편, 특성있는 대학운영, 경쟁과 소통을 당연시하는 학풍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박남정 기자